

◆ 교회목표 ◆
신령한 예배
진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3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순진

7월 마지막 주의 선교행전

몽골 · 방글라데시 · 스리랑카팀 귀국
파키스탄팀 29일 출발!



△ 지난해 여름 몽골 단기선교팀원 중 한 지체가 현지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지난 13일과 18일에 출발했던 몽골팀과 방글라데시 팀이 27일(화)과 28일(수)에 각각 귀국한다. 성도들은 무더위와 싸우며 복음을 위해 수고의 땀을 한껏 흘린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겠다. 한편 평신도훈련 프로그램인 LMTC 과정을 통해 선교이론 교육을 마친 훈련생들 중 선발된 스리랑카팀은 선교지 적응훈련을 잘 마치고 지난 22일(목)에 두 명을 현지로 남겨두고 전원 귀국하였다. 현지에 남은 두 훈련생(오경희, 주진희)은 스리랑카에 남아 현지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좀더 시간을 보낸 후 8월 중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주 29일(목)에는 파키스탄팀(단장 손철 장로, 지도 이홍성 목사 외 12명의 단원)이 현지를 향해 출발한다. 이들은 주로 의료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면서 그동안 외선부에서 훈련을 받은 현지인과 그들의 가정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증거할 예정이다. 온 성도들은 이들의 머릿길 하나까지라도 하나남겨서 보호하고, 영혼이 더욱 맑아져서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뜨겁고 지속적인 기도로 동참해야 하겠다.

'예수 사랑 전한세'

26-27일 소년부 여름성경학교

소년부는 26일과 27일 1박2일간 충현기도원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한다. 주제는 예수사랑 전한세(롬 10:13-15)이고 강사는 한승일 전도사, 이평희 집사, 김혜정 집사 등이다.

'99 하반기 장학금신청 8월 8일까지

대상자: 전반기 장학금 수령 및
누락자 중 자격에 합한 자
제출서류: 청서진, 학업계획서,
전반기성적증명서, 추천서,
보호자 통장사본, 등록금영수증 사본
제출및 문의할 곳: 교육국

문성용 군 사고사

더 많은 사랑의 기회 남기고 간 우리 지체



벨렐찬양대 및 벨렐남성총창단, 대학부에서 열심히 다해 섬기던 문성용 군이 지난 21일(수) 오후에 벨렐찬양대 수련회 도중 사고사를 당했다. 프로게임을 마치고 개을에서 몸을 씻는 과정에서 현지 중학생들과 함께 따로 길을 갔다가 발을 헛디뎠고 사고를 당한 것이다. 교회는 급히 문 군의 어머니 김은양 집사(2교구)와 더불어 교구 교역자들, 제2교육위원장 및 찬양위원장, 그리고 행정위원장 등을 현장에 보내 최선을 다해 사고를 처리했다. 문 군의 시신은 강남 삼성병원으로 옮겨졌고, 발인예배는 지난 23일(금) 오전에 드려졌다. 발인에 앞서 김성관 위임목사는 22일(목) 저녁 영안실을 방문하여 위로예배를 집행하였다. 한편 모든 사고 수습 과정에서 문 군의 어머니 김은양 집사는 일일이 간사를 표현면서 큰 슬픔 중에서도 신앙의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벨렐찬양대 및 대학부 동료들은 헌신적인 섬김으로 그리스도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뜨거운 동료애를 보여 주어 참찬한 모든 성도들을 감동시켰다.

학원전도회 수련회

때: 1999년 7월 28일(수) 1부예배 후 12시
곳: 베다니홀
대상: 학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 및 학부부

최근 우리 자녀들은 인터넷, PC방, 여행 등에 온통 관심을 쏟으면서 음란과 퇴폐문화 속에서 교외와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전도회에서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교육계 종사자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학교별 전도사례회 및 결석학생 및 결손가정학생들을 전담인력으로 키우는 방안 등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1999. 7. 25 학원전도회 집단용 장로 율립

충현기도원 차량운행

7,8월 중에도 계속되는 화요, 금요집회

날씨는 무더위도 기도원에서 진행되는 화요, 금요집회는 계속됩니다. 무덥고 지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기도하는 성도들로 기도원이 가득하기를 바라며서, 충현기도원 차량운행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버스 운행시간(충현교회 ⇨ 충현기도원)
화요집회 (오전)	▶ 교회(09:45) → 서린A(09:50) → 개포시영A 육교앞(10:00) → 분당 차병원 건너편(10:15) → 강남A 건너편(10:20) → 탑마을주공A(10:22) → 기도원
	▶ 교회(10:00) → 서린A(10:05) → 개포시영A 육교 앞(10:15) → 모란(10:30) → 기도원
금요집회 (오후)	▶ 도곡사거리 우체통(10:30) → 대치동희대주유소(10:30) → 시타은행(10:37) → 개포8단지(10:43) → 수서A(10:12) → 수서역(10:15) → 기도원
	▶ 하절기(교회⇨기도원) 21:30 출발 ▶ 동절기(교회⇨기도원) 21:00 출발

구분	봉고차 운행시간(충현교회 ⇨ 충현기도원)
화요집회 (오전)	▶ 모란시장(10:00) → 분당 차병원 건너편(10:04) → 전하리교회(10:10) → 이매사거리 휴게공원(10:13) → 탑마을경남A 건너편(10:15) → 탑마을주공A(10:17) → 기도원
	▶ 모란시장(21:40) → 차병원 건너편(21:44) → 전하리교회(21:50) → 이매사거리 휴게공원(21:53) → 탑마을경남A 건너편(21:55) → 목련마을주공A(21:57) → 중대초교 앞(22:00) → 기도원

◆ 집회 후 돌아가는 차량은 오던 길을 반대로 운행해 줍니다.

금주의 농어촌전도

1,9,15,16,17교구에서

금주에도 5개 교구에서 농어촌전도활동을 떠난다.

1교구는 총북 청주의 가금교회(성경학교와 농항, 이마을 봉사활동을 통한 전도)에서, 9교구는 강원도 전선시의 주절중앙교회(전도집회 및 성경학교)에서, 15교구는 강원도 원주의 반석교회(성경학교, 이마을 및 의료봉사활동을 통한 전도, 축조전도, 초창전도집회)에서, 16교구는 원주의 셋별교회(성경학교, 축조전도, 초창전도집회)에서, 그리고 17교구는 총북 제천의 금성교회(성경학교, 이마을봉사활동을 통한 전도, 초창전도집회)에서 각각 사역을 진행한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의 동참이 기대된다.

국외외국인선교부 여름수련회

7월 29일 - 8월 1일

외선부에 출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선부 여름수련회가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진행된다.

그동안 베풀은 복을 전리를 다지고 새로운 지체들을 초청하여 주일예배까지 참석시키는 금번 수련회를 위해서 외선부 교사들은 성령께서 주권하시는 수련회가 되도록, 복음만이 증거되도록, 하나남겨서 예비하신 외국인근로자들이 모아지도록, 그리고 수련회에 함께 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성도들의 기도의 동역이 있어야겠다.



김 창 인 목사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보내심 (이사야 45:1-8)

“나 여호와는 나의 기쁨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4절)
아브라함과 함께 동방의 외인 중에 예수님의 그림자로 나타난 고레스 왕은 이사야가 쓰나제 왕에게 죽임을 당한 지 100년 후에 태어나 주전 549-529년까지 20년간 바사를 다스린 왕입니다. 고레스는 메데의 속국인 안산이르는 작은 나라의 감비세스 왕의 아들로써 주전 549년에 왕이 되자 종주국인 메대를 격파하고 바사를 건설하였고 정복을 거듭하여 545년까지에는 전 소아시아를 수중에 넣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에 입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와서 고생을 하였다. 나는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니 자유롭게 메사불델모로 올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면서 유대 민족에 대한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내일 할 일을 예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170년 전에 “고레스라는 왕이 날 것인데 내가 그를 불어 사용한다. 그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의 택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포하리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70년 전에 예언하였고(사 45:1), 에라미아가 70년 전에 예언한(렘 29:10)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1.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 (1) 하나님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갔습니다.
“... 나의 기쁨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1절)
“허리를 풀며”는 옷을 벗는다는 말입니다.
고레스 왕이 행차하면 다른 나라 왕들이 스스로 허리를 풀고 왕복을 벗고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항복합니다. 성 문은 문튼히 잠그고 한 번 버퍼 보지도 못합니다. 전 소아시아를 정복하는 3년 동안에 힘들어 싸워준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시기니까 그가 온다고만 하면 열왕이 자기의 손으로 허리를 풀며 왕복을 벗고 나오기 바쁘고 입고 성문을 열고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무릅쓰십니다.
- (2) 하나님은 고레스 앞에 가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뿔문을 쳐서 부수며 쇠뿔장을 꺾고”(2절)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것은 고레스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앞서 모든 일을 이

- 루셨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특별히 539년 고레스가 왕이 된 지 10년 만에 바벨론을 정복하였습니다. 고대에 가장 위용을 떨치던 바벨론성은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방어선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나는 새가 아니면 바벨론 땅을 밟을 자가 없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고르디아스와 카다라는 두 장군을 보내어 바벨론을 정복하도록 하였습니 다. 그때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신하 천여 명을 궁중에 불러 술을 마시며 노는 밤이었습니다. 이날 밤에 고레스 왕이 보낸 두 장군의 군사들이 난공불락의 바벨론성 안으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벨론 성문을 잠근 다음에는 그 안에 들어갈 장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장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좌우편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떤 이의 말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는데 문을 지키는 군사들이 추종고 노느라고 정신이 빠져서 문을 잠그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어쩌나 막한 왕인지 두 바벨론의 장군 중에 “우리가 왕을 아무런 섭정없이도 고생이나 하다가 개죽음을 주어라 쉽다. 차라리 고레스 왕에게 문을 열어 주고 항복하면 우리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리하여 성문을 열고 다리를 내내려 결과 그날 밤으로 고레스 왕의 군대가 성 안으로 쳐 들어가 벨사살의 목을 잘라 죽이므로 바벨론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두 장군이 바벨론성을 정복한 후 4개월이 지나서 고레스 왕이 친히 바벨론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 (3) 하나님은 모든 보화를 고레스 왕에게 주어서 유대 민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네게 욱담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3절)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실이간 금은보화가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 다. 고레스 왕이 가는 곳마다 열물이 그 앞에 항복을 합니다. 소아시아에는 10개국이 훨씬 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무릎을 꿇고 항복하므로 소아시아를 통일하였습니다. 왕들은 각종 금은보화를 가지고 고레스 왕에게 항복하였습니 다. 고레스 왕은 유대 민족을 귀환시킬 때에 이 물질을 사용하였습니다.
 - (4) 하나님은 고레스 왕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 너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때를 두들길 것이요”(5절)

- 여기에 재미있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지만 고레스의 아버지 감비세스는 이방 사람인데 아들을 놓고 이름을 지을 때에 성경에 예언한 대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몰랐습니 다. 고레스 자신도 큰 사람이 될 것을 몰랐습니 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왕으로 아들의 이름을 고레스라고 짓게 하시고 또한 고레스를 들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셨습니 다.
-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영광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는 불신자로 들어 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음이 바른 자를 들어서 쓰시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시켰겠습니까. 그 시대에 자신도 고레스 왕을 들어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발표하신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고레스 왕을 들어 쓰신 것일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바로 지키는 자를 자신의 뜻대로 쓰실 때에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일뿐입니다.
- ## 2. 본문에서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확실히 믿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시만 믿을 줄을 알고 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매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보물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회개하지 못하면 배를 맞습니 다. 그러므로 회화를 놓치지 전에 회개하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회개해 갖고 있다가 숨겨진 죄가 드러나면 큰 일입니다. 사람은 잘한 것은 기억하지만 못한 것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을 잘했거나 못했거나 기뻐해 두셨다가 상벌을 주십니다. 죄와 허락받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 셋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한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다가 홍해를 만나 하나님 그에게 맡겨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다 있고 “모세아, 애굽에는 공동로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들여 죽이려나”라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역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 신 증거가 많습니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홍해도 갈라지고 여러고성도 무너집니다.
- 넷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개를 지키야 합니다. 죄와 타락하지 말고 죽음을 각오하고 절개를 지키야 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린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개를 지켰습니 다. 이렇게 한 결과로 요셉은 고생 위에 고생을 당하여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 다. 3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30세의 젊은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애굽의 국부총리로 세우셨습니 다. 그 후 요셉은 80년 동안 인류 역사에 없는 영광을 누렸습니 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개를 지키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 다섯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허락한 것을 불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허락을 받은 것은 가만히 있어도 주실 것인데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기도는 믿는 자들이 믿고 있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허락하신 일을 받을 때는 마음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주시려도 깨닫지 하여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매를 맞고 복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여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허락하신 일에 대하여 마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를 맞지 않고 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 여섯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은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서 행방이 되는 날은 벨사살 왕의 목이 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복을 받는 날에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 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날은 주님을 섬기던 백성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에 여러분은 복을 받은 반면에 사자지 복을 받는 자에 떨어지면 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한 자의 심판이 노릇을 하지 말고 불한 죄와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절개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바르 해야 하겠습니까. ■



김 성 록 목사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4-7)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라사대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4절). 오늘 본문의 첫 두 문장은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라는 한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때에, 모든 상황에서 기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하기를 계속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대하여 바울이 그토록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일부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내적 평강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흥분되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기는 쉽습니다. 혹은 아주 작은 문제들을 경험하는 한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휘몰아치는 고통스런 상황, 도무지 기쁨이 없는 상황의 한 가운데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쁨이

바울은 옥에 갇혀 죄사슬에 매이는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사하지 않는 옥세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순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세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영원한 중보의 기도, 그의 겸손함과 순결하신, 헌신과 거룩한 용기, 사랑과 친절, 동정과 관세, 영광과 위엄 등에 관한 모든 진리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영적인 교분을 기뻐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그의 영광스런 임재를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해야 할 의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뻐해야 할 의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함으로써 다른 이들에 대하여 친절과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라사대니라’(5절).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위대한 것을 소유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기

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온유해서 친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준비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 무언가를 많이 쌓아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기쁨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신실한 종들은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이 기쁨은 이 땅에 속한 열려들을 풀어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우리의 모든 열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어려운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일들을 앞에 두고서 자기 힘으로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애를 쓰거나 쓸데없는 격정에 파문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무너집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고자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따라야 할 좁은 길입니다.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서 영원한 기쁨이 곡조가 울려나올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은 가벼워지고 주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거룩한 기쁨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감사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평강

거룩한 기쁨은 기도와 감사로 나타납니다. 기도와 감사는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7절). 평강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는 정직한 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워할 간절히 기대되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골 3:15).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인생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결정하도록 맡겨져 있습니다. 그 평강이 있을 때, 우리를 한 편으로 돌리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균형과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들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나를 지켜 주는 그 평강이 아말로 더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진실되고 영속적인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뿐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평안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경험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들을 찾아 보십시오. 그것들은 사회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서하게 하는 은송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전부입니다.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강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축복된 경험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사랑으로 가득찬 주님의 손길에 당신의 심령을 만지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기쁨의 끝없는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멘. H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진실되고 영속적인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뿐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

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6절).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열려들을 일으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세상에 속한 것들에 집착하게 만들면서 흩어놓으려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기쁨은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평온하게 지켜 줍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모든 관습을 하나님의 인제하심으로 인한 위대한 기쁨에 집중시킵니다. 이 거룩한 기쁨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들은 참으로 무가치해 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기뻐하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영적인 기쁨은 기도와 간구로 표현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소유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일반적인 영적 대화라면 간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간절적인 탄원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역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이웃, 나라와 세상을 위해

세계 선교

김영대 선교사 인터뷰

사막의 열기를 뚫고 일궈지는 복음의 밭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김 선교사: 제 뼈는 다들 건강한 편입니다. 저는 몸이 꽤 약해진 것 같은데, 아마도 더위와 모기 등 열악한 현지 환경과 더불어서 초기부터 언어와 사역을 병행하며 무리하면서 온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늦은 나이에 선교지에 왔다는 생각 때문에 꽤 마음이 좀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 선교사: 본래 제가 가고자 했던 사역지는 요르단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제게 직접 수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수단을 처음 유입할 때는 느린 것은 ‘환경은 참으로 열악하지만 할 일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1999년 11월 6일에 파송을 받은 후 초창

기에는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주로 현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낮시간보다 더운 밤을 보내는 것이 기억되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침대를 집밖으로 옮겨서 잠을 청하려고 하면 수심마리의 모기떼가 달려들어서 도무지 잠을 잘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 번 이사를 해야 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8개월간 아파를 배우면서 사역을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기에 만났던 현지인들이 저와 우리 교회 수단의 사역의 중요한 현지인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굳이 시기를 나누는다면 이때가 제1기일 것입니다.

제1기에서 2기로 넘어간 시점은 1997년 12월 경입니다. 당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몇 분의 장로님과 목사님이 수단을 방문하셨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현지사역이 눈에 띄게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현지인 교회(Evangelical Community Church)가 설립되었고, 소그룹 지도자 교육과정, 에스라성경연구회 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998년 8월에 교회로부터 단기시간이 수단을 방문하면서 개척사역이 이루어지고 교회 사역도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에 오신 의로팀을 통해서는 의로 클리닉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매주 3-40명씩의 현지인이 의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역은 젊은이 공동체사역입니다. 현재 9-12명 규모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들 안에 있는 청소년이 참으로 됩니다. 아마도 제가 이번 휴가기간을 마치고 현지로 돌아가면 수단사역 제3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기선교에 대해서 제안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김 선교사: 단기선교가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우선 선교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기선교팀이 현지에 방문함으로써 선교사에 본교회에 소속된 지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인해 선교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단기선교팀이 왔다 가면 선교사에 대한 현지인들의 신뢰감이 매우 돈독해지는 것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선교팀이 들어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을 통해 개척지들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선교팀은 현지인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고등무로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단기선교팀의 성격을 유지한 채 이곳의 에스라성경학교나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ES(Evangelical School)를 위해 강의를 해 주실 수 있는 협동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3, 6, 9, 12개월 단위로 들어오셔서, 집중교육을 시켜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150여명이나 되는 현지인 학생들을 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일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우리 중원교회의 특별한 선교 사역의 일환으로 이 일이 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지인들을 보면 일할 만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기존의 다른 선교단체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 이들과 접촉할 경우 남의 교인을 빼앗게 되는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 또한 사람을 모으고나 물적자원을 잘못하면 비뚤어진 사람만 키우는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 고등학교생들과 대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 키우기 사역에 적합한 ES와 에스라성경학교가 우리 중원교회에 주도해가는 사역으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 선교사: 일단 전교회적 차원에서 단기선교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좀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계속 보내니까 선교가 빠른 속도로 견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 자신이 순수한 복음 전파의 열망을 잃지 않도록, 또한 믿음의 주요 훈련을 잃지 않는 이(Builder and Perfecter)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현지교회와 여러 훈련과정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초등부

교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한층 더한 성경학교
여기선 무슨 일을 하나요?

프로그램 중 어린이들을 몇 개 조로 나누어 교회의 각 구성 구역을 자세히 담당하는 순서를 가졌다. 어린이들은 당회장실, 도서관, 선교위원회실 및 본당의 예배준비실, 강대상, 음향조정실 등을 자세히 돌아보고 해당직원들의 상세한 안내를 받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매우 유익한 순서가 되었다. 어린이들은 이를 통해 교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한층 깊어질 수 있었다.

중등부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

사랑과 감사의 진정한 의미 체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 학생과 교사를 4개조로 나누어 1박2일간 경기지역 장애인 시설 4곳을 방문하여 봉사하는 활동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비닐하우스로 지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게 되고, 사랑과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몸으로 경험하는 큰 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들을 کمک 놀라게 할 만큼 헌신적인 자세로 시설을 청소하고 장애인들을 씻기는 등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시설별 활동이 끝나면 전체 학생 및 교사들은 다시 교회에 모여 1박2일에 걸쳐 비디오로 촬영한 각 시설에서의 활동을 보면서 반성하고 보람을 느끼며, 하루 모를 초창한 자리에서 부흥회를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 세례날에는 장제세침 운송회를 통해 스스로 불면한 자의 입장에서 보는 기회를 가진다. 중등부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이 활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치는 데

전국일꾼 양성

새롭게 여는
여름계절학교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소리로 심사숙한 새로운 시도를 있습니다. 성경, 시론 시도와 밀접한 성실한 준비는 언제나 귀하고 귀합니다.

매우 유익하다는 판단 아래 이것이 중등부 여름수련회 고정활동으로 계속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년부

예수 사랑 전야제

여름 때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훈련

소년부는 올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를 ‘예수 사랑 전야제’로 정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아이들의 귀에만 머물러도 부족하기 위해 기도원에서 성경학교를 마치고 들어오는 중, 전 학생들을 용인, 분당 등 4지역으로 나누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사리온에 들러진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사하시길 것을 믿으면서, 사실 그동안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전도교육을 시키는 일은 많이 고려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전도훈련은 어린이들을 찾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일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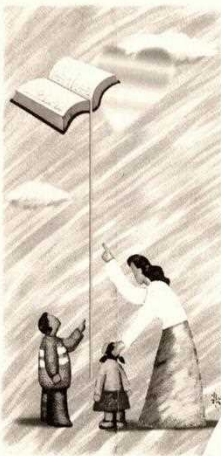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7월 16, 17일 1박2일로 양평에 있는 금산산기슭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주제로 청년부 수련회가 열렸다. 청년1부 여름 수련회는 유난히 짧다. 휴가 내기가 어려움 이유로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숙움이 있다. 원래 청년1부도 다른 부서처럼 3, 4일의 수련회를 가졌다. 그러나 여름에 해야 할 사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점(?)을 내어 수련회를 갖고 귀한 휴가는 동춘과 이춘으로, 그리고 땅 끝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1부의 수련회는 전생애 나가기 전 견학을 가다듬고 파송하는 의미가 강하다. 사사가 한 권을 훌쩍 웃으면서 우리의 산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산지를 소망하며는 시간을 가졌다. 1박2일 동안 말씀 먹고 찬양으로 목축되고 말씀 먹고 또 먹고 먹고. 청년1부 제자들은 더위대신 말씀을 먹었다. 육신의 몸은 피곤으로 지쳐 있었지만 지체들의 영혼은 말씀으로 준비된 힘을 얻었다. 우리의 원수 마귀와 사탄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청년1부는 올 여름에는 각 교구와 협력하여 내륙 사역에 집중할 예정이다. 우리의 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는 어머니에게서 ...

이수경
(청년부 교사)



'엄마, 이런 단기 선교 여행은 너무 좋았어요'라고 기분 좋게 이야기 하면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엄마가 수경이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잖! '이런엔 너무 몸과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던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구나.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기도 많이 못했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미안하다.' 같이 있을 땐 몰랐었는데 저는 엄마의 기도를 먹고 살았습시다.

저는 엄마에게서 믿음을 배웠습시다. 엄마에게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웠습시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식구들은 엄마에게 마지막 기도를 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정말 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는 물론이요, 믿지 않는 친척과 그 친척들의 친척들까지(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교회에 다니기 위해서)는 친척의 친척도 예수를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집 아파마네를 위해서, 엄마의 기도 속에는 위로는 대동령을 비롯하여 아래로는 정말 사돈의 팔촌까지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그런 매일의 거의 비슷한 기도 제목들이 과연 이루어질까의 심도 있었지만 정말 놀랐는데 그 기도제목들은 조금씩 조금씩 응답이 되어

점점 옆에서 지켜보

주만 바라 볼지라

이소영(청년부 신일부 리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지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추주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많은 분들이 나에게 "어떻게 그런 미소를 가질 수 있었어?" 하고 물을 때에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요. ..." 또 "자매님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아요"라는 말에 나는 늘 미소로써 대답합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을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그 긴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을 견디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도 시련은 있었고 아직도 때때로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울고 싶을 때면 즐거웠던 순간을 기억하며 웃습시다. 삶이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나엔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나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아니면 제게 이 모든 것을 건널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외침을 들으시고 나에게 빛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이가 그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이고, 내리 거절할 그 사랑의 빛을 말입니다.'

나는 많은 교육자들을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나는 늘 기도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지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많기에 나는 매일 잠을 자지기 전에 골로새서 4장 2-6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하기를 하여 이르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라 하신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라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여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찰을 끼쳐서 너의 말을 행할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니다.

엄마의 눈

물론 보며 엄마

의 기도를 보며 또

의 믿음을 보며 신앙을 배워갑니다. 유쾌도 농어촌과 케냐로 단기 선교를 떠나려 합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백(力)이 제 뒤에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공교로써 발행하지 않으시는 저의 기도의 후진자 우리 사랑하는 엄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분유를 신변에서 먹이고 정말 많은 공부를 해 훌륭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있는 믿음과 사랑을 품어 주고 보여 주는 우리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볼 내 사랑

안명진(청년부 73동기)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다. 회귀성(性)을 가진 작가가 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라는 글이 국어책에 실려 있었다. 그 속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보고 잊혀지는 것들, 가끔 너무 좋다고 생각했다가 땅강아지의 바다에 던져 버려지는 것들이 저자의 눈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경험들을 자극했던 기억이 있다. 어느 가을 아침 낙엽을 모아 태우는 냄새, 아까진 오래 된 마호가니 책상에 어려 있는 추억들, 젊은 시절 만났던 여인의 우산에서 엘브의 우산을 생각하니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해보였던 주인을 가졌던 아얀 울분들, 비오는 날에만 느낄 수 있는 기분들을 저자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듯 보였었다. 아직도 내가 못있는 것은 아마도 그 글에 깊이 동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몇 년 전 나도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글을 써본 기억이 난다. 하지만 이전 과거의 잊혀진 것들에 대한 추억과 향수가 아니라 앞으로 천국에서 만나게 될 사랑에 대한 소망의 글을 쓴다.

새벽 4시, 나는 이 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어렸을 때 나는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잤었다.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엄마 목소리 같은 9시 TV시보에 맞춰 잠이 들었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법처럼 느껴졌던 그때. 푸른 빛 도는 미명에 나는 어떤 분위기 때문에 늘 잠을 깨어야 했다. 잠자는 척 눈꺼풀을 가늘게 떴을 때, 내 옆에는 무릎 꿇고 푸른 창문을 향해 앉아서 아주 낮은 소리로 기도하시는 할머니가 계셨다. 기도가 끝나면 내가 벌써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 드러내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 소리를 듣다가 다시 잠나라도 돌아간 것이 한 두 번이 아닌 기억이 난다. 기도 소리를 들었다. '명진아, 명철이, 명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키워 주시고, 슬로운의 지혜, 다니엘의 믿음을 주시고, 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

아복에 두고 오신 말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였을까, 출어지 않는 자식들, 건강하지 못한 하늘을 염려하는 마음이었을까, 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모습을 나에게 남겨주고 가신 할머니를 만날 날을 기다린다.

테디의 찬송 속에서 보이는 사람이 있다. '아름이 장미에 입이난 후 찬송을 쌓은 것 본받아서 슬릴 때 되도록은 찬송하면서 ...'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너무나 바랄 것이 다. 나도 내가 천국 가는 날을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추석 연휴 첫날 김기물상 기운이 심해진 아빠를 보면서 연휴가 끝난 날 병원에 모시기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일주일에 두번씩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야 했기에 그 며칠 사이에 그렇게 영원히 떠나버릴까를 몰랐다. 눈과 신장 등 혈관의 미세한 부분부터 합병증을 얻어 볼지 못하는 담당할 한 주에 두번씩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해야 하는 고통과 함께 생활하고 계셨지만 늘 나에게 힘을 주고 나의 언덕이 되었던 분. 함께 공원을 걸으면서 나누었던 미래에 대한 좋은 희망찬 이야기를 들은 마음 속에서 항상 듣고 있다. 좋은 목소리를 듣고 찬송을 즐겨 부르던 아빠는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마치고 난 '슬릴 때 되도록은 찬송하면서'의 의미를 깨닫게 될지 모르겠다. 기운이 다하면 날까지 하나님 찬양을 그치지 않으셨던 모습을 나에게 남겨 주고 가신 아빠를 만날 날을 기다린다.

귀한 믿음의 선조들을 허락하시라 그 모습들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정말 푸른 봄이 떨어질 듯한 높은 하늘에 풍개모를 피어오른 멋진 구름들을 따라보면서 가장 멋진 고 가장 고 가장 구름을 끌어 동생과 함께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구름을 찾아 내기에 여념이 없었던 어린 시절 그 어느 여름날처럼, 내 인생의 순간마다 나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린다.

이야기 하나

어릴 적 엄마가 새 옷을 사 주셨습시다. 빨리 입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습시다. 내일 아침엔 친구들에게 가서 새 옷 자랑을 해야지 부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시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엄마의 목소리. "예쁜 새 옷은 먼저 주일날 가서 하나님한테 보여야지." 주일날 입고 가라 하십니다. 서운한 마음을 안고 한 옷을 입고 학교로 가서 주일을 기다렸습시다. 지금도 새 옷을 사준 주일까지 기다렸다가 입고 가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 새 것의 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엄마의 말을 기억하면서 ...

이야기들

첫 월급을 받던 날, 부모님께 내복이나 뭐 그런 것들을 사드리라고 다른 사람들이 충고합니다. 그래? 뭘 사는 것이 좋을까? 첫 월급으로, 우선 신일초는 패이 놓고, 내가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작은 월급이지만 부모님께 뭐라도 해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엄마, 뭘 해 줄까?' 그러나 엄마는 '첫 월급이 니가 하나님께 다 바쳐라.' 그러셨습니다. 이 신일초를 생가 한 날 것도 아닌데 너무 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나의 첫 월급이 아닌가 싶어 당당히 마음으로 첫 월급 전부를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도 내 것은 없다는 것을,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내게 잠시 맡기신 것임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셋

교회교육 시리즈 4

교회교육과 시공간 문제 2

1. 문제제기
2. 자라나는 교인들
3. 교회교육과 시공간 문제
4. 미래교육을 본 신앙교육
5.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것이

적어도 총련교회 교회학교 교사가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배무른 소리다? 그렇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 중 이렇게 교육 공간이 넉넉한 곳을 찾기도 그다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공간이 부족하다. 한 공간을 두 세 부서에서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시간이 안맞아 옥신각신 해야 하고, 때로는 공간쟁탈전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예배실에서 십수개의 반들이 동시에 분반성경공부를 하느라고 하늘을 찌르는 교사들의 목소리로 시끄럽적하다. 교사들은 목이 아프도록 소리를 질러대야 겨우 학생들의 귀에 도달할 만한 목소리라도 낼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 부서에서는 장외에 앉은 채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통과 대화식 교육은 거의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면 무슨 묘안이 없을가?

지난 '99 교육세미나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몇 가지 묘안들이 제출되었다. "현재 놓여 있는 장외자를 삼분의 일 정도의 길이로 바꾸어 학생들이 서로 둘러앉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분반성경공부를 이동식 칸막이를 구해서 반별 모임이 차분하게 진행되도록 하자". "선생님의 음성이 이어폰을 통해 아이들의 귀로 전달될 수 있는 장치를 구입해서 개발하여 작은 소리로도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차라리 교회학교 예배실에 스피커가 달린 여러개의 유리방을 설치해서 전체 예배와 분반공부가 모두 가능하도록 하자". "반편성을 관리반과 양육반으로 나누어, 관리반은 현재처럼 10명 내외로 하여 교사들이 기도하고 상담하고 성명하면서 학생들의 신앙을 관리토록 하고, 양육반은 45명의 관리반을 모아 한 반으로 편성하여 교육에 온사가 있는 교사로 대표로 가르치고 교육보조자료를 다른 교사들이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배려토록 하고, 공간을 좀 더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무엇보다도 내심 골에 나는 귀한 제안들이다. 우리 교회의 현실에 맞는 공간활용 해법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 공간문제도 인형 연을 살리는 일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는 다른 사람들, 다른 부서를 배려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겠다. (원집삼)

전도훈련을 마치고

곡식 거두는 일꾼의 땀 감당코자 합니다

강 순 (자센, 7교구)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어 예수님의 종인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심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전도훈련 2기 교육은 나로서는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닌 관계도 있었지만 전도라는 많은 글자만 보아도 피하고 싶은 말이었다. 전도란 꼭 해야 되는 과제라서 태세를 갖출 때나 계기가 이루어졌을 때만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훈련과정에 실천사례 중 노방전도에 일하여 보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동행시켜 주셨기에 말문을 열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심이 놀랍고 신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레 주저하는 마음 전혀없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천국입니다. 믿는 자나 불신자나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과 수명은 같지만 죽음 후에 가는 길은 꼭 두 길입니다. 믿으면 천국, 안믿으면 지옥입니다"라고 전하였다. 이런 나의 말을 듣고 "나도 교회 가보고 싶었고 믿고 싶었어"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은 기쁘고 벅했다. 그대에게 전도에 대해 무가치한 마음을 벗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쾌감에 며칠을 설레이면서 지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때 급하시어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전도훈련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린다. 이제서 뒤를 돌아보니 전도로 열매드리지 못함이 몹시도 부끄럽고 회개하여 감히 다짐하여 보기를 이제의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확실하게 주님에 대해 의지하고 싶어졌다.

전도훈련 교육을 받고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 나에게 큰 수확이다. 용기와 담력이 커지도록 전도자의 자질을 확실하게 교육하신 지도목사님, 훈련 중 혹시라도 불편하여 도중하차 하는 이가 없게끔 도움을 주시고 봉사도 수고하신 집사님, 순종하여고 애를 썼던 훈련생 모두가 마음과 뜻과 열심이 모아져서 수료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께 모든 기쁘신게 해 드리는 일은 평개를 버리고 익은 곡식 거두는 일꾼의 땀을 감당하는 것이리라 여기서 이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는 마음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

신임 교육전도사의 각오

목회자 후보생으로 신학원에 진학한 후, 이제 처음 교육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신임 교육전도사들로부터 이 각에 들어선 배경과 양으로의 각오 등을 들었습니다.



이정철 전도사(고동부 부지도)

저는 대학 졸업, 군제대 후 28세라는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하루 기쁘게 곧 목회의 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동안 미루어 오다가 "씩씩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씨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신년제자를 들으면서 이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후 고동부 교사로 섬기다가 이렇게 교육자로 세워지고 보니 두렵기도 하고 큰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죄사함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통해 깨끗해진 심령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깨끗한 믿음의 길을 가자고 자신에게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가르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희철 전도사(예배대부 부지도)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35년 명의 동양인들에게 복음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한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남북이 통일되어 북반의 동양인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싶습니다. 제 자신이 동양인이라 하고 공부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여섯 분 정도의 수화를 하시는 다른 전도사님들이 도와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삼열 전도사(시랑부 부지도)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 잡고 교회 다니면서 자연스레 게 목회적인 소명이 제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소년부때, 또 중등부때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줄곧 이 길을 생각해 왔습니다. 사랑부에서 두 여달을 배우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모든 편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문서를 통해 시대를 깨우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소명을 원합니다.



김성준 전도사(중등2부 부지도)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교육받았고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것을 저의 일로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생생활을 하는 동안 물리학을 전공하면서 잠시 딴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이내 곧 정돈이 되었습니다. 저는 내가 직접 붙들고 세우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공부, 전, 음악을 통한 사역인 하나님께서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기검 전도사(중등3부 부지도)

고등학교 입학한 때, 목회적인 소명을 확신했고 별다른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대학때 흔들림이 있기도 했지만 수련회를 통해서 곧 회복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7년간 배우고 자라오면서 젊은이 사역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좌우명 같은 것이 있다면, 세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일에서 사람 중심으로 끊임없이 마음이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의 마음을 잃을 줄 아는 목회자로 자라가고 싶습니다. 저는 주께서 인도하시면 장차 장래인 사역에 헌신하고자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들 소식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무사히 끝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20일 양일에 걸친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순조로이 치러졌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닮자'라는 주제하에 마귀의 새 가지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과 역경을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낸 바울과 실라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러한 성경공부 외에도 찬양배우기, 성경, 만화기 활동 등을 통해 재미있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행사가 순조로이 진행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수현 통신원)

유년부

“선생님! 성경학교 또 언제 하나요?”

지난 16-17일에 실시한 여름성경학교를 큰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은혜로웠던 세 번의 예배와 성경찬양으로 뜨거웠던 저녁 부흥회, 평소보다 넉넉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각 반 성경공부시간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영성훈련을 충분히 보충한 것 같았습니다. 또한 TV에 출연해도 손색없었다는 평가를 받은 찬양의 울동진 선생님들이 아란 흥겹고 재미있었던 찬양과 율동시간.

조금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느낄 수 있어 감격스러웠던 천로역정, 배움을 꼭 쥐고 볼 수밖에 없었던 개인별 장기자랑시간과 재미있고도 감동을 주었던 선교영화, 그밖에 아름다운 마감하며 파벌도 모여 앉아 진지하게 기도했던 촛불기도모임과 끊임없이 먹었던 맛있었던 간식과 식사. 마지막으로 특별정 응원하 고 신나게 뛰어놀았던 즐거웠던 운동회시간, 특히 저급처럼 무더운 날이면 다시 해보고 싶은 너무나 시원하고 통쾌했던 물풍선 던지기놀이, 이 모든 행사를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를 위해 땀흘려 헌신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아참! 그런데 기념선물로 받은 아외용 돗자리를 손에 쥐고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않고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던 친구들도 있다고 하네요. “선생님 성경학교 언제 또 하나요?” 하면서요. (윤옥희 통신원)

중등2부

주님의 사랑 흘러 넘친 거대한 합주

작년에 이어 이번 여름 수련회도 19-21일에 걸쳐 네 곳의 장애인 시설(사랑 터의 집, 광주 섬김의 집, 양평 은혜의 집, 광주 은혜의 집)에서 실시하였다. 그것은 네 군데의 공간에서 동시에 연주한 거대한 합주였다. 오랫동안 기도와 헌신으로 기뻐하고 준비한 선생님들과 사뭇 손을 내밀어 시설의 장애인들을 감싸안은 우리 학생들과 시설의 여러 형태 장애인들과 초청받은 학부형들이 함께 이루어낸 신성한 조화였다. 이에 참여한 중등2부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진짜 보아야 할 참 세상을 보았다. 그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외면하였던 세상이었다. 여름수련회는 기도, 눈물, 헌신, 노력, 땀만 한 데 어우러진 사랑의 하모니였다. (심순옥 통신원)

영어교육부

눈높이 섬김 다짐

17일 교회에서 '내가 자유하였으니' (고전 9:19)라는

충현복지관
교사 모집

대상: 생활지도(그룹용) 교사 모집
인원: 2명
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 시설 종사자 우대
기한: 7월 30일까지
문의: 564-4885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하였다. 중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나이도 다양하고, 국적도 다양한 영어교육부 지체들이 모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들 안에서 깨달은 바를 나누고, 퀴즈를 풀며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영어교육부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양성에 익숙한 지체들이라,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나와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내 몸을 쳐서 그들의 종이 되기까지 섬기겠다는 말씀이 더욱 마음에 와 닿았다. (박천영 통신원)

4교구

새가족 초청 환영회

수없이 많이 복음을 전했지만 바위같이 딱딱 달던 가족들, 보이는 세상에 취하여 복음을 묻어 버리던 이웃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부지런히 찾아 이름과 집을 알게 된 이웃들. 이들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마음조리 기도하던 나날들. 복음과 함께 초청하는 나의 말을 속여나 날려 버리지는 않을가 걱정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동성교회 잘 준비된 새가족 초청잔치에 초대된 새가족들은 가슴에 때론 꽃을 달고 산물로 받은 성경을 펴놓고 경건한 예배에 동참하여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수준높은 찬양과 간증에 감동되었고 성도를 통하여 아직은 잊을 수 없지만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과 온갖 정성을 다하여 환영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 모시었다.

이번 주일부터는 교구로 발돋움을 옮겨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확실히 하리라 보여진다. 인도자들과 약속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가득히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새가족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의 보화함이든 은혜의 삶을 살기를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린다. (임옥희 통신원)

사랑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사랑부에서는 7월 16-17일 이틀 동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충현기도원에서 여름성경학교를 가졌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시간에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했고 이 시간에 학부모들을 앞으로 모셔서 감사의 박수를 드렸다. 참석학 학부모는 모두 12분이었다. 낯익은 학부모들도 겹치지만 처음 보는 학부모도 겹쳤다. 인사 말씀 중에 자신을 소개를 드림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하나님과 교사들에게 감사하는 내용도 있었다. 자주 아외로 나가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교사들에게 감사한다고 하였다.

저녁 8시에 시작된 '내 마음에 주님...'이란 프로그램은 십자가 모양에 수많은 촛불을 붙이고 모인 사람들마다 촛불을 하나씩 들고서 시작을 했는데 조용한 가운데 치러진 이 행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 촛불처럼 자신을 죽여가면서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눈물로 감동했다. 사회자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물·매·들

우리들의 왕따에게 박수를

'왕따'는 부정적인 사회 현상으로 그것이 이 파생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공동체 생활에서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왕따 현상의 역기능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러나 모든 경우의 왕따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다.

교회 안에도 왕따가 있다. 그들은 자신이 왕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자기들 주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다수의 집단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외톨이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의 눈치를 뒤통수에 맞으 나 날려 버리지는 말고 행동 하기를 서슴치 않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정신적으로 무거워한 다수가 선택하는 무난한 길을 두고 어떤 길을 찾아서 가겠다는 그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고 내 생각이 없이 무조건 따라만 가는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사람들인 진정으로 교회의 성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역사를 통하여 보면 이런 류의 왕따들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교회에는 이런 의식 있는 왕따들도 필요하다.

왕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정원환)

기도제목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예수님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인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친구들 모두가 즐겁게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고 했다. 또 어떤 학생은 만 못하는 친구가 말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고, 또 어떤 친구는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마음을 벌려서 입을 벌려서 기도제목을 얘기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우리 교사들은 정말 놀랐다. 그리고 감사드렸다. 평소에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들이 가르친 복음의 씨앗이 그들 안에서 성장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는지 어떤지 몰랐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그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모든 기도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에서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



수님이 아닌 우리의 생활 전반에서 늘 함께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의지하며 나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 사랑부 학생들이 성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재지 통신원)

교회소식 / 목·장칼럼

알림

- 구제헌금
오늘 1-V 부예에서 드립니다.

모임

- 임시당회
- 일시: 오늘 찬양예배 후
- 장소: 본당
- 장로 화요세백기도회
- 일시: 27일(목) 새벽기도회 후
- 장소: 교육관 109호
- 인수집사회 화요세백기도회
- 일시: 26일(일) 새벽기도회 후
- 장소: 교육관 109호
- 주일오후기도회
- 일시: 오늘 15:00
- 장소: 감리회홀
- 제2교도위원회 월례회
- 일시: 27일(일) 새벽기도회 후
- 장소: 교육관
- 교구위원회 월례회
- 일시: 오늘 15:30
- 장소: 선교관 301호
- 기획위원회 월례회
- 일시: 오늘 찬양예배 후
- 장소: 선교관 302호
- 각 찬양대 총무 모임
- 일시: 오늘 16:00
- 장사: 찬양위원회실
- 찬양대 지도자 간담회
준비 기도회
- 일시: 오늘 찬양예배 후

- 장사: 찬양위원회실
- 참석: 장사, 자원봉사자, 찬양대원
- 10. 기획위원회 실행위원회 모임
- 일시: 28일(목) 18:30
- 장소: 선교관 301호
- 11. 실행위원회 회의
- 일시: 28일(목) 새벽기도회 후
- 12. 권사회 제4회 월례회
- 일시: 28일(일) 1부예배 후
- 장소: 사랑방실

남녀전도회

1. 바울 4지회 월례회
-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 장소: 일마누엘홀
2. 바울 9지회 월례회
-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 장소: 교육관 414호
3. 바울 12지회 월례회
- 일시: 오늘 15:00
- 장소: 교육관 314호

4. 베드로 5지회 월례회
- 일시: 27일(목) 20:00
- 장소: 새기장
5. 야세드 17지회 월례회
- 일시: 오늘 15:00
- 장소: 아벨홀
6. 루디아 12지회 월례회
-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 장소: 교육관 308호

별세

1. 문복순 성도
(유복한 성도 부인, 16교구 안산2구 일) / 13일 별세, 15일 장례
2. 서순이 집사
(이전숙 성도 모친, 16교구 포일1구 일) / 13일 별세, 15일 장례
3. 신순남 성도
(심방만 집사 모친, 전가희 성도 장모, 10교구 상계8구 일) / 14일 별세, 16일 장례
4. 김옥선 권사
(유두원 집사 모친, 이화정 권사 시

- 모, 17교구 죽전2구 일) / 15일 별세, 17일 장례
5. 홍순규 집사
(강남선 권사 남편, 3교구 대치4구역) / 21일 별세, 23일 장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1. 임봉환 은복장로, 김순복 은복권사 / 강남구 대치동 현대A, 107-705 ☎ 552-4664
2. 이영주 장로, 정영실 집사 / 강남구 청담동 127-31 청담 현대A, 104-2001

원로목사 동정

김장민 원로목사는 7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휴가를 갖는다. 영육의 힘과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향후의 강건한 사역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도가 요청된다.

● 8월 주일 및 수요일 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 예배 (장로)					찬양 예배 (인수집사)		수요일 예배 (권사)	
		I	II	III	IV	V	찬양	인수	수요일	II
8	1	이 훈	최대원	김진채	강은원	오정현	박상식	강동화	안숙자	
	8	김재명	박승준	강모용	남신우	신상수	강순남	안은희		
	15	김인관	이병학	김종구	최무길	정윤석	유상대	고진자	안은진	
	22	손경수	차신숙	윤성철	조인재	이인상	전종필	장로	열미희	
	29	안종욱	김영길	이하영	임무현	이병욱	정재호	고정일	오화자	

새 · 가 · 족 · 을 · 한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034	이상욱	5	고동부		1041	한규택	15	바울		1048	이경희	4	청년1부	이상해(2)
1035	이승일	7	청년2부		1042	변숙자	16	에스터	김미덕(4)	1049	윤준준	19	청년1부	윤숙자(4)
1036	편호범	12	베드로		1043	황선아	19	청년1부	이상해(2)	1050	김경연	19	청년1부	
1037	조남해	12	루디아		1044	임단희	19	청년1부		1051	전해숙	19	청년1부	
1038	편유림	12	청년1부		1045	양지연	19	청년1부	정우성(3)	1052	최재윤	19	청년1부	
1039	이근호	13	베드로	김위자(13)	1046	이세현	19	청년1부		1053	김해란	19	청년1부	
1040	강은순	13	루디아	김위자(13)	1047	장태민	19	청년1부						

※ 출중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장칼럼

이들의 현실 때문에

불가피한 회사일로 토요일 늦게까지 지방에 있다가 밤차를 타고 이른 새벽 서울에 도착한다. 그리고 집에 들릴 겨를도 없이 교회로 향한다. 교회에 도착해서 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아내가 가져온 아이스크림을 맛을 잡아입는다. 아침은 굶는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다고 굳게 믿는 몇 아이들을 맡아 돌봐 주실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다. 그들을 볼 때 눈물겨운 감동이 일어난다.



그들, 그러나 일년에 단 한번 쉬는 2박3일의 휴가까지도 고스란히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 바치는 아름다운 그들, 이들의 수고에 눈물이 난다. 말 안듣는 녀석들 앞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고래고래 소리를 친 후에는 돌아서서 가슴 아파하는 그들, 끊임 없이 불평하는 몇 아이들을 달랠려고 하였던 이 아이기를 들어 주는 그들, 막무가내인 녀석들을 염려하면서 물러앉아 고교를 털어놓는 그들, 아무런 대가없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들의 현실 때문에 교회학교는 여전히 살아 있다.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한 후, 파김치가 된 몸을 끌고 밤 10시가 다 되어 제자들이 간 수련회 장소로 차를 몰고가는 교사들이 있다. 주중에는 회사일로, 주일에는 교회학교 일로 전혀 힘없음이 일년을 숨가쁘게 달려온

심 · 기 · 는 · 분 · 들

■ 원로목사 김장민

- 시무장로
윤명식 (시무부장)
마성학 (시무부장)
신동운 (시무부장)
이병학 (시무부장)
김종구 (시무부장)
정윤석 (시무부장)
유상대 (시무부장)
전종필 (시무부장)
이인상 (시무부장)
임무현 (시무부장)
이병욱 (시무부장)
정재호 (시무부장)
- 원로목사
조진근 (시무부장)
김은원 (시무부장)
오정현 (시무부장)
박상식 (시무부장)
남신우 (시무부장)
신상수 (시무부장)
강순남 (시무부장)
안은희 (시무부장)
고진자 (시무부장)
열미희 (시무부장)
오화자 (시무부장)
- 원로목사
김은원 (시무부장)
오정현 (시무부장)
박상식 (시무부장)
남신우 (시무부장)
신상수 (시무부장)
강순남 (시무부장)
안은희 (시무부장)
고진자 (시무부장)
열미희 (시무부장)
오화자 (시무부장)
- 원로목사
김은원 (시무부장)
오정현 (시무부장)
박상식 (시무부장)
남신우 (시무부장)
신상수 (시무부장)
강순남 (시무부장)
안은희 (시무부장)
고진자 (시무부장)
열미희 (시무부장)
오화자 (시무부장)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종석 (시무부장)
김정훈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 위임목사
이종석 (시무부장)
김정훈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 위임목사
이종석 (시무부장)
김정훈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 위임목사
이종석 (시무부장)
김정훈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김정현 (시무부장)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수, 목, 금, 토, 일)	본당
IV	오후 2:00 (수, 목, 금, 토, 일)	본당
V	오후 5:00 (수, 목, 금, 토, 일)	본당
English Service	9:00 a.m.	목회관 (가톨릭관)
현 우 예배	오후 5:00	본당
수 우 예배	12:00 ~ 1:00 오후 7:30	본당
금 오 예배	오후 7:30	본당
세례기도회	오전 4:00	본당